

놀라움과 기쁨,

《남자의 탄생》에 보내준 자극으로 더 좋은 작품 쓸 터

《남자의 탄생》 | 전인권 지음 | 푸른숲 | 300쪽 | 13,000원

전인권



한 해를 마감하는 일로 바쁘게 보내던 중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약간은 어리벉벉하다. 평소 나의 작업은 제도권과 별 상관이 없으려니 생각해 왔던 터라 놀랍기도 하다. 그리고 매우 기쁘다. 말할 수 없이 기쁘다. 《남자의 탄생》과 같은 작업에 주목하는 사람들과 잡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이무튼 이렇게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수혜의 마당이 펼쳐졌으니 그동안 하지 못 했던 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사실 그 책은 나름대로 야심찬(?) 비전을 갖고 시작한, 아주 오랜 구상 끝에 나온 책이었으니 말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이나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곳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80퍼센트가 영어로 되어 있다. 학생들은 죽어라고 영국과 미국, 서구의 이론을 공부한다. 그 다음 그 잣대로 한국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그게 몇 년이 못 가고 서구의 이론이 우리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쉽게 방향전환을 하지 못한다. 이미 산을 너무 높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한 채 엉겨주춤 서 있는 게 한국 사회과학의 현실이다.

《남자의 탄생》은 그 같은 상황인식 아래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의 모국어로 있는 그대로 서술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정석을 무시하고 바둑을 두는 사람처럼, 일체의 이론과 모방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기억과 추론에만 의존하여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한국인의 삶과 한국의 사회구조를 찾아 여행을 떠났던 것이 《남자의 탄생》이었다. 소설가라면 모를까 정치학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작업방식이었다.

여기에 선택된 연구대상이 '가족과 남자 아이'였다. 가족은 아주 가까워서 다 아는 것 같지만 너무 기초적이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어린이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순을 온몸으로 민감하게 느끼고, 누구나 한번 경험하는 이 세상의 약하고도 귀한 존재이다. '남자의 탄생'이란 제목은 일견 알팍한 관심을 끌어보려는 포르노 제목 같지만 그것 역시

이 책이 의도한 바이다. 즉 아무리 거창한 주제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쉽고 평이한 문체, 평이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탄생》은 미완의 책이다. 그 책을 출간한 후 6개월 동안 우선 나 스스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만큼 아직 그 책의 출발지점이 낮고 보잘 것 없는 것이다. 아직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많은 독자와 비평가들이 새로운 유형의 '여자의 탄생'과 '남자의 탄생'에 대해 말해 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들로부터 엄청난 자극을 받고 있다. 지금 나는 그 자극을 이해하기 위해 하루하루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자극의 결과, 변화내용과 방향은 나 자신도 가늠하기 어렵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2003년 현재는 어려운 시대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듯하다. 타인의 어려움을 멸시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자세로, 근원적인 주제와 방법에 충실하면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사실 공부하는 사람에게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회가 날로 복잡하고 사람들의 욕망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그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는 정도일 것이다. 창작을 하기보다는 편집을 하고, 편집을 하다보면 그 속에서 창작의 소재가 발견된다는 것이 요즘의 내 생각이다. 아직 발전 도상에 있는 《남자의 탄생》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 주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심사위원님들께 다음에는 보다 발전된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